

<건축, 토탈아트 혹은 레디메이드>

남성택(한양대 건축학부 교수)

6. 팝아트 POP ART 와 건축: 있는 그대로 as found 의 오브제들

뒤샹의 1917년 샘Fountain은 미술관에 의해 전시가 거부되었다. 이 사건은 작은 스캔들로 곧 잊혀지는 듯 했다. 그러나 레디메이드 예술은 2차세계대전 이후 되살아나 예술 신화로 자리잡는다. 1950년대 들어 뒤샹의 개인전들이 시작되고 그의 레디메이드들이 조명받기 시작한 것이다. 뒤샹의 예술은, 당시 구성 예술의 전통을 극복하고자 노력했던 젊은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희망이었다. 그들은 아직 지배적이었던 피카소의 존재를 넘고자 했고, 뒤샹을 새아버지로 선택했다.

먼저 영국 그리고 미국에서 등장하는 팝아트 예술가들도 레디메이드의 영향을 직접 받은 아방가르드 중 하나였다. 우리에게 친숙한 미국 예술가 워홀Andy Warhol은 전략적으로 대량소비의 대상인 상품 오브제들의 형태에 집중한다. 코카콜라병 같은 오브제들도 비예술적 일상 오브제라는 점에서 레디메이드 오브제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재현representation되어 전시된다는 점에서, 그대로 전시되고자 했던 뒤샹과는 차이가 있다. 다만 그 재현 방식이 상업적이고 기계적인 실크스크린으로 자동 생성된다는 점에서 여느 회화의 구성과 근본적으로 다르며, 선택에 의해 주도된 형태라는 점에서 레디메이드와 유사하다. 실크스크린은 반복repetition된 동일 형태를 생성한다. 이 점에서 홀로 고립된 기념비인 고전적 오브제 예술과 다르며, 마찬가지로 레디메이드와도 차별된다. 당시 유독 반복이 강조되는 예술들이 많았던 이유는 산업 오브제들에 대한 기본 인식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20세기 전반의 산업 오브제가 비행기처럼 기념비적monumental이었다면, 20세기 후반은 청소기처럼 일상적ordinary인 것이 되었다. 전자가 대량생산시대의 오브제로 제작자-작가의 관점에서 선택된 것이라면, 후자는 대량소비시대의 오브제로 소비자-관객의 관점에서 선택된다. 전자가 기능적, 윤리적, 형이상학적이려면, 후자는 소비 욕망을 일으키는 관능적 오브제이며 슈퍼마켓 진열장의 모습처럼 반복된 형태로 강조된다.

당시 런던의 전위 예술가/건축가들은 새로운 현상의 특징에 가장 빨리 반응했다. 미국 팝아트보다 앞서 신대륙의 대중popular 문화를 엘리트 문화의 선입견없이 관찰하며 수용했고, 더불어 유럽 대륙의 전위 예술들과

융합시켰다. 선구적인 그들은 전쟁으로 파괴, 복구되는 과정 속의 적나라한 도시 및 건축 공간의 민낯, 이질적 현실 속의 삶의 모습을 받아들였으며, 평범하고 일상적인 오브제들의 내재적, '있는 그대로 as found'의 가치를 드러내려는 건축, 브루탈리즘 Brutalism을 발전시켰다. 도시와 건축, 그리고 내부 오브제들은 다시 하나의 풍경으로 다시 공명하고자 했다.

Independent Group

Member : 1) Nigel Henderson, photos on urban spaces ; 2) Edouardo Paolozzi, Scrapbooks, 1947-1952 ; 3&4) Peter & Alison Smithson

미국 풍경: Christopher Tunnard, Man-Made America: Chaos or Control?, 1963 ; Donald Appleyard, Kevin Lynch, John R. Myer, The View from the Road, 1965 ; 콜라주 collage와 초현실주의 : Andre Breton, "Crise de l'objet", 1936: Exposition Surréaliste d'objets (mathématiques, naturels, trouvés et interprétés), Paris

3 expositions

A.& P. Smithson, N. Henderson, E. Paolozzi, Parallel of Life and Art, 1953 ; Patio and Pavillon, This is Tomorrow, 1956 ; A.& P. Smithson, House of the Future, 1956

Brutalism

A. & P. Smithson, Hunstanton School, 1949-1954 ; cf. L. Mies van der Rohe, Alumni Memorial Hall, I.I.T., 1945-1946 ; Charles & Ray Eames, Eames House, 1949 ; Le Corbusier, Unité d'habitation, Marseille, 1946-1952 : « L'architecture, c'est, avec des matériaux bruts, établir des rapports émouvants. » (1923) and « béton brut » ; Maisons Jaoul, 1951-1955 ; cf. James Stirling, Langham House, 1958 ; Herzog & de Meuron, Ricola, Laufen, 1986-1987

Megastructure

A. & P. Smithson, Golden Lane, London, 1952 ; Berlin-Hauptstadt, 1957-1958 ; cf. Le Corbusier, Plan « Obus », 1931 ; Candilis, Josic, Woods, l'université libre de Berlin, 1963 ; 아키그램 Archigram : Peter Cook, Plug-in City, 1964 ; Warren Chalk, Capsule Homes, 1964 ; Ron Herron, Seaside Bubbles, 1966 ; 컨테이너 건축: Luc Deleu, Hoorn Bridge, 1990 ; Spillmann Echsle Architekten, Freitag Flagship Store, Zurich, 2006